지난주 예배 출석 및 모임 통계
Statistics and Worship Attendance Last Week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1 2 3 4 부 Adults	스프링		77	816	971
		스트림		137		
		리버		175		
		오션		169		
		라이트하우스		109		
		향동캠퍼스		48		
		방 문 자 등		101		
	교회학교 Sunday School	영유아부	101호	9	155	
		유 치 부	3층소예배실	23		
		유 년 부	5층 예배실	23		
		소 년 부	7층 예배실	35		
		청소년부	5층 예배실	48		
		향동교회학교	향동캠퍼스	17		
주 일 오 후 Sunday Afternoon service		2층 대예배실		119		
수 요 예 배 Wednesday night service				71		
토 요 기 도 회 Saturday night prayer				131		
실 버 스 쿨 Silver school for the aged		5층 예배실 (화) 오전 9:30		한시적 연기		
직 장 인 예 배 Wednesday worker's service		6층 채플실 (수) 오전 12:00		매월 마지막주		

새벽예배 Early morning services	월	화	수	목	금	토	주간합계
	100	100	103	111	103	113	630

돕고있는 형제교회 및 선교사
Brother's Church and Missionaries Helping

국내선교 (4) Local Mission
- 상주교회 (주용은)
- 시내장로교회 (최정관)
- 예닮교회 (조원혁)
- 주안교회 (엄명섭)

해외선교 (3) Overseas Mission
- 대만 (김성문/조숙순)
- 키르키즈스탄 (정치훈)
- 태국 & 미얀마 (권동환/김연범)

기관선교 (2) Christian Institution Mission
- 총회북한선교
- 나사렛대학교

각교회 전도목표

구 분	스프링	스트림	리버	오션	라이트하우스
전도목표	52	52	52	52	52
누 계	2	15	6	1	1

지난 주 헌금현황

지난주 헌금 총액	21,979,268 원	지난주 지출 총액	17,838,212 원
헌금 총액 누계	1,197,742,748 원	지난주 지출 누계	1,171,504,334 원
지지난주 잔액	22,097,358 원	지 난 주 잔 액	26,238,414 원

2026년도 등록 새가족 New Registered Members of Our Congregation in 2025

순번	이 름	주 소	선교회	인도자	등록일
7	유 ○ 진	상 암 동		김태희	2월 8일
8	고 ○ 희	상 암 동	470여선교회	스스로	3월 1일
9	장 ○ 균	상 암 동	400남선교회	스스로	3월 1일
10	이 ○ 진	상 암 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3월 1일
11	김 ○ 영	상 암 동	515남선교회	스스로	3월 8일
12	김 ○ 숙	상 암 동	514여선교회	스스로	3월 8일
13	김 ○ 은	상 암 동	309여선교회	스스로	3월 15일
14	이 ○ 윤	도 내 동	spring청년공동체	스스로	4월 19일
15	장 ○ 정		406여선교회	스스로	4월 26일
16	박 ○ 인		406여선교회	스스로	4월 26일
17	장 ○ 희	상 암 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5월 3일
18	이 ○ 엽	남가좌동	400남선교회	스스로	5월 17일
19	이 ○ 아	남가좌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5월 17일
20	조 ○ 애	상 암 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5월 17일
21	염 ○ 석	송 도 동	569남선교회	김애순	5월 24일
22	손 ○ 지	송 도 동	558여선교회	김애순	5월 24일
23	원 ○ 호	원 흥 동	향동캠퍼스	스스로	5월 31일
24	양 ○ 훈	구 로 동	400남선교회	김슬옹	6월 21일
25	김 ○ 식	삼 성 동	향동캠퍼스	스스로	6월 21일
26	문 ○ 석	상 암 동	400남선교회	스스로	7월 12일
27	김 ○ 신	상 암 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7월 12일
28	서 ○ 근	상 암 동	309남선교회	김다은	8월 2일

※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 뉴스
Announcements
"상암동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2026년 후반기 두이레 특별 새벽기도회
- 일시 : 9월 7일(월)~19일(토) 오전 5:50; 총 12일
- 강사 : 신민규 담임목사

2. 제 27회 이웃사랑 나눔바자회
- 일정 : 9월 19일 (토)

각 선교회 별로 판매 물품을 잘 준비해주시고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바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 협력사역회(은퇴 및 시무장로) 부부수련회
- 일시 : 8월 16일(주일)~18일(화)
- 장소 : 정선수양관

4. 3분기 사역점검회의
- 일시 : 8월 22일(토) 오전 7:00
- 장소 : 8층 예배실

5.성경대학 모임 안내
- '마음의 정원'
  8월 18일(화) 10:30 – 권수용 목사
- '예수가 하려던 말들' (비유 공부)
  8월 21일(금) 19:30 – 조요한 목사

6. 주일 예배시 주차 금지 구역 안내
주일 낮 교회주변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차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 주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담임목사 동정
- 8월 16일(월)~18일(수) :
  협력사역회 부부세미나 (정선)
- 8월 20일(목) : 나사렛학원 법인사무국
- 8월 24일(월)~29일(토) :
  A국 초청 목회컨설팅 강연

교회 청소봉사자 (각 선교회)	8월 22일	여선교회(406) 여선교회(591)	8월 29일	남선교회(515) 여선교회(514)

◈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매주일 9:45~10:20 (5층 새가족양육실)

[2부 안내위원] (1층) 김태희 (2층) 이명숙 (본당) 박인선 김선순

[3부 안내위원] (1층)김광동 조월심 (2층) 이성애 (본당) 소경선 안지원 이미화 (4층) 유미경 유희숙 조선화

주차안내 봉사 조정환 **교회차량운행** 남철희 송지훈 조정환 최두환 강효진

온라인 헌금계좌 은행(새마을금고) 예금주(상암동교회)

십일조헌금 0436–0900–0334–1 일 반 헌 금 0436–0900–1381–1

주일 큰 비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1부 묵상예배(오전7:30)
1st Service(Meditation)
인도&말씀 : 조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영 상 광 고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 도 자 Presider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찬 송 Hymn	♣ 찬송가25장 면류관 벗어서(1,2,3절)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사기 14:1-3, 19-20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나를 통하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말 씀 Message	유혹 앞에서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가?
찬 송 Hymn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94)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폐 회 송 Closing Hymn	반 주 자

2부 전통예배(오전9:00)
2nd Service (Traditional)
인도 : 유덕선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영 상 광 고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 도 자 Presider
찬 송 Hymn	♣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1,2,3절)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공동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최두환 권사 (실행제직)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21:1-7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 나를 통하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Choir Song	찬양! 알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
말 씀 Message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찬 송 Hymn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찬 289장)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폐 회 송 Closing Hymn	반 주 자

3부 은혜예배(오전10:30)
3rd Service (Family)
인도 : 한희나, 김은성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찬 양 단	아바딤 찬양단
합심기도 Choir Song	다 같 이
공동기도 Congregational Prayer	김하동 장로
찬 양 Choir Song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할렐루야 찬양대)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21:1-7
말 씀 Message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합심기도 Choir Song	다 같 이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 나를 통하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파송의찬양 Celebration	아바딤 찬양단

♣ 표가 있는 순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모두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늦은 비 예배 (오후 2:30) Sunday afternoon worship
- 기 도 이원택 권사 (다음주: 유병윤 권사)
- 말 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잠 1:2-11)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수요 단비 예배 (저녁 7:30) Wednesday night worship
- 성 경 고린도후서 9:11-15
- 말 씀 감사는 믿음의 표현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예 배 봉 헌 담 당 (Usher team)

구분	금 주	다 음 주	봉 헌 위 원
1부	교 역 자	교 역 자	교역자
2부	최인철 장로	차주섭 장로	송두성 안순자 유희숙 이가희 최금님
3부	차주섭 장로	김순진 장로	강경자 김은해 신정화 신화옥 최양숙 이경희

다음주 예배 공동기도담당

구분	기 도 위 원
1부	인 도 자
2부	조용만 장로
3부	이재명 장로

생명의 말씀 신민규 목사
Message Dr. Shin Min-Gyoo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요한복음 21:1-7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에 어부였던 일부 제자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제자들은 모두 7명이었는데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또 다른 제자 2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이지만 주님도 안 계신데 다른 특별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기 잡는 저들은 여럿이 모여 재미도 있었고 옛날 추억도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슨 문제였을까요?

첫째, 제자들이 힘을 합해도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 21:3). 일곱 명의 제자들이 한곳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여러 명이 해도 안 됩니다. 오랫동안 안 해서 고기 잡는 실력이 줄었나요? 아닙니다. 고기잡이로 평생을 살아온 제자들이 3년 쉬었다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심히 한다고 일을 다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힘을 합친다고 다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라고 다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다 잘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주님은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 (요 21:4). 주님은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닷가에만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에만 계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 중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바로 거기가 최고의 장소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 1:9).

셋째, 그들은 예수를 '몰라' 보았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요 21:4). 또 저들은 4절에 보니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주님이 저들 중에 계신 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니 예수가 오신 것도 모릅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계셔도 우리는 종종 예수가 서 계신 줄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심에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 너무 바쁘면 주님 오신지도 모릅니다. 너무 분주해 주님도 몰라봅니다. 바빠서 좋기는 한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늘 옆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1)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 21:5)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제자들에게는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뭐 하러 바다에 배 타고 갔나요? 뱃놀이하러 갔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바캉스 갔나요? 아닙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제자들이 고기 못 잡은 것을 모르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시면서 왜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의 **"너희들이 왜 여기 있느냐?"**는 물음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또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2) "주님이시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 21:7). 주님이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시라"**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제자가 물고기를 잡은 것 보고 야단법석 떨지 않고 "주님이시라" 인정하니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도 3년이나 제자 훈련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3) 주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 21:9). 예수께로 가니 숯불에 생선과 떡이 놓여있었습니다. 우리가 주께만 가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밤새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떡과 생선 준비하셨습니다. 추운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베드로의 옷 말릴 숯불까지 피워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 이레가 아닌가요? 우리가 감사를 빼앗기면 춤추는 자는 사단입니다.

설 교 노 트

신민규 담임목사의 1분 컬럼 (Senior Pastor's 1 Minute Column)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와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과 충성, 인내와 절제와 같은 것들도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시기와 질투, 지나친 욕심과 정욕 역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요소들이 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에는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는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결실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안에 맺혀야 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에도 마음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강림후 12주 ● 2026년 8월 16일 (제 73권 33호)

상암동교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합 3:2)
거룩한 영성, 따뜻한 인격,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교회

정선수양관

향동캠퍼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
The Community of Love, Faith, and Hope.

신민규 담임목사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
Rev. Dr. **Min–Gyoo Shin**

상암동교회(구 성암교회)는 1955년 6월 8일 상암동 산기슭 (현재4단지)에서 창립이래 70여년동안 상암동주민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교회로 마을 원주민들 거의가 한번쯤은 나와 본 영혼의 안식처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추억이 있는 교회다. 지금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장자교회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영적 소임에 충실하고 있으며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안산동산교회 원로목사 김인중 목사가 상암동교회 출신이다.

담임목사 신민규 목사는 나사렛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부나사렛대학교(이학사, 문학석사), 미국 나사렛신학대학원(신학석사), 미국 캔사스주립대학교(이학석사, 교육학박사), 미국 에모리대학교(목회상담학박사)를 졸업했다. 미국유학 중 캔사스주에서 정선교회를 개척 담임했고 귀국 후 나사렛대학교에서 10년간 신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와 프린스턴신학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2000년 6월 10일 상암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2년 3월 부터 2016년 2월까지 제6대 나사렛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2013년 6월부터 국제총회이사회 부의장으로 국제 나사렛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대만나사렛신학대학 총장으로 봉직했다. 2019년 3월 제64차 한국총회에서 선출되어 3년 임기의 총회감독과 2021년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역임하였고, 2023년 12월부터 나사렛대학교 제16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상암동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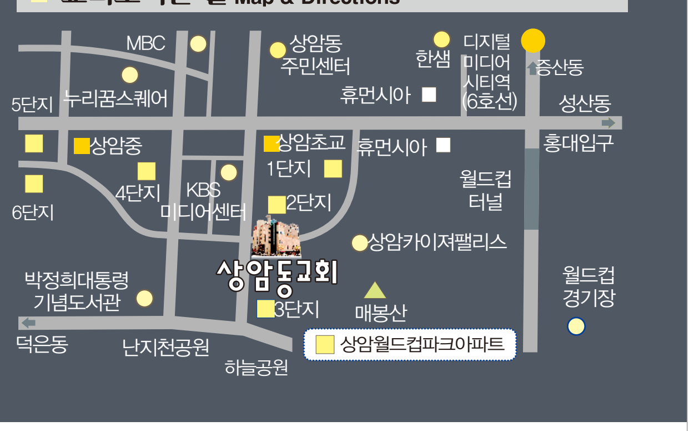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Church Staffs (Associate Pastors, Missionaries, Lay Elders, and Lay Workers)

- 부 목 사 : 유덕선 권무일 권윤석 조요한 권수용 김용태 이광원 한희나 박충열 김은성
- 협동목사 : 김진국 류욱렬 ■ 선교사 : 권동환 김연범 정치훈 ■ 교육전도사 : 이수진 신은혜 ■ 교육사 : 문은경
- 시무장로 : 김순진 민병석 최창수 도명락 권병수 장옥수 신승중 조용만 원유만 김하동 임재용 이재명
- 원로장로 : 장석춘 권태환 최인철 ■ 은퇴장로 : 박순영 이종태 박수영 차주섭 송연희 유준식
- 명예장로 : 강상대 김무일 박영애 양철호 윤성용 유중종 이두표 강영호 ■ 관리사 : 강신중
- 지 휘 : (임마누엘) 최혜경 (할렐루야) 소경옥 ■ 방송·영상 : 김남식 윤지한 조범수 김기호 홍흥표 문정빈 (간사)조성민
- 반 주 : (1부)한희나 (2부)이현주 (3부)권은선, 김송희 (향동캠퍼스)이진화 (새벽)박은희 소재경 소경옥

예배시간 안내 Worship Services

주 일 1부 예 배	주일오전07:30	2층 본 당
주 일 2부 예 배	주일오전09:00	2층 본 당
주 일 3부 예 배	주일오전10:30	2층 본 당
향동캠퍼스 주일예배 1부	주일오전10:30	향 동 캠 퍼 스
향동캠퍼스 주일예배 2부	주일오전12:30	향 동 캠 퍼 스
주 일 오 후 예 배	주일오후02:30	2층 본 당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06:00	2층 본 당
수 요 예 배	수요오후07:30	2층본당, 향동캠퍼스
토요찬양기도회	토요오후07:30	2층 본 당
청 소 년 부	주일오후12:00	5층 예 배 실
청 년 부	주일오후12:00	2층 본 당
유 아 부 (0–4세)	주일오전10:30	1층 101호
유 치 부 (5–7세)	주일오전10:30	3층 소예배실
유년부(1–3학년)	주일오전10:30	5층 예 배 실
소년부(4–6학년)	주일오전10:30	7층 예 배 실

교회오시는 길 Map & Directions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24 (상암동 1638) 사무실: (02) 309–1906 www.sangamdong.org
정선수양관 (신동읍 동강로 836) : 담당사역자 권무일 목사 향동캠퍼스 (덕양구 꽃마을로 42, 9층) : 담당사역자 권윤석 목사

ペテロは主だと聞くと…湖に飛び込んだ ヨハネによる福音書 21:1-7

イエス様が十字架で亡くなられてから、弟子たちは自分たちの生業の現場に戻りました。過去に漁師だった一部の弟子たちは再び海に戻りました。そのとき一緒にいた弟子たちは全部で７人でしたが、シモン・ペテロ、トマス、バルトロマイ、ヨハネ、ヤコブまた他の２人でした。弟子たちは復活されたイエスに出会った後でしたが、主がおられないため特別にすることもありませんでした。それで自分たちの仕事に再び戻るしかなかったのです。しかし魚をとる者たちが何人か集まっても面白くもなく、昔のことが思い出されたのです。しかし問題がありました。弟子たちにはどのような問題があったのでしょうか?

第一に、弟子たちが力をあわせても「何もとれませんでした。 **「…その夜は何もとれなかった」**(ヨ 21:3)。七人の弟子たちが一か所に集まっていました。その中でペテロが「私は漁に行く」と言い出します。すると他の弟子たちも私たちも一緒に行こうと言いました。こうして弟子たちは舟に乗り、懸命に網を打ちましたが、夜通し一匹も捕れませんでした。人数が多ければうまくいく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長い間漁をしていなかったから腕が落ちたのでしょうか？いいえ、違います。漁で生計を立ててきた彼らが、三年間休んだからといって、一晩中やっても一匹も捕れないはずがありません。しかし確かなことは、一生懸命やれば必ず物事が成し遂げられ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多くの人が力を合わせれば必ずうまくいくわけでもありません。専門家だからといって必ず成功するわけでもありません。人に認められているからといって、すべてがうまくいくわけでもない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知る必要があります。

第二に、主はその場所にずっと「立って」おられました。 **「既に夜が明けたころ、イエスが岸に立っておられた…」**(ヨ 21:4)。主は弟子たちが漁をするとき湖に立っておられました。しかし主は湖にだけ立っておられたのではありません。教会にだけおられるのではありません。聖なる場所にだけおられるのではありません。わたしたちの生業の現場におられるのです。そしてそこでわたしたちを見守ってくださるのです。ジョン・ウェスレーが言った言葉の中で **「何より素晴らしいのは、神が私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ることです」**(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と言う有名な言葉があります。他の人が私と一緒にいてくれる時間ではなく、神様が私と共にいてくださるその時間こそが、まさに最高の時間です。神様が共におられる場所、そこが最高の場所です。**「わたしは、強く雄々しくあれと命じたではないか。うろたえてはならない。おののいてはならない。あなたがどこに行ってもあなたの神、主は共にいる」**(ヨシュア 1:9)。

第三に、彼らはイエスだと「分からなかった」のです。 **「既に夜が明けたころ、イエスが岸に立っておられた。だが、弟子たちは、それがイエスだとは分からなかった」**(ヨ 21:4)。また彼らは４節を見るとイエス様が湖畔に立っておられましたが、主が彼らの中におられることてが分かりませんでした。あまりにも自分の仕事に没頭していたためイエス様が来られたことも分かりませんでした。イエスがわたしたちの人生の現場の中でおられても、わたしたちもしばしばイエスが立っておられることに気付きません。確かに主は私たちの側におられるのに、私たちは気付かないことがあります。私たちの主は、いつも霊によって共におられます。また、あまりにも忙しいと、主が来られたことにも気づきません。あまりにも慌ただしくて、主を見分けることさえできません。忙しいのは良いことですが、私たちは大切なものを見失っています。しかし、主がいつも側におられること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そのとき、**主はどのように反応されたのでしょうか?**

(1)「食べる物があるか」と尋ねられました。 **「…子たちよ、何か食べる物があるか」**(ヨ 21:5)はもっとも重要な質問であり弟子たちにとっては胸の痛い質問でした。**「子たちよ、何か食べる物があるか?」** 彼らが何をしに湖に船に乗って行ったのでしょうか? 船遊びしに行ったのでしょうか? 違います。それではバカンスに行きましたか? 違います。魚を取りに行ったのです。そのため魚を取ったのかと尋ねられました。実は、主は弟子たちが魚を取っていないことを知らずに尋ねられたわけではないのです。では知っていながら何故尋ねられたのでしょうか? この質問の **「あなたたちは何故ここにいるのか?」** は主の問いかけです。弟子たちは、自分たちのすべきことも、立つべき場所も分からなくなっていたのです。

(2)「主だ。」 **「イエスの愛しておられたあの弟子がペトロに、主だと言った。シモン・ペテロは主だと聞くと、裸同然だったので、上着をまとって湖に飛び込んだ」**(ヨ 21:7)。主が来られたことを最初に悟ったのは使徒ヨハネでした。彼が **「主だ」** と告げたとき、主はその信仰を喜ばれました。3年間の訓練が実を結んだ瞬間でした

(3) 主はあらかじめ「準備」しておかれました。 **「陸に上がってみると、炭火がおこしてあった。その上に魚がのせてあり、パンもあった」**(ヨ 21:9)。イエスのもとへ行くと、炭火の上に魚とパンが置かれていました。私たちが主のもとへ行きさえすれば、主はすでに私たちのために全てを備えておられます。夜通し一匹の魚も捕れず、空腹だった弟子たちのために、主はパンと魚を用意しておられました。寒さに震える弟子たちのために、そしてペテロの濡れた服を乾かすための炭火まで、主はすでに燃やしておかれました。主は全てを備えたうえで、私たちを招いてくださるのです。まさに主が備えてくださるではないでしょうか。もし私たちが感謝を失ってしまうなら、その隙に踊り出す者はサタンです。

(번역) 이와가타 집사

对彼得说：是主！…就跳在海里 约翰福音 21:1-7

耶稣在十字架上死后，门徒都回到了自己谋生的地方。从前打鱼为生的几个门徒，又回到了海边。那时同在一处的门徒共有七人：西门彼得、多马、拿但业、约翰、雅各，另有两个门徒。门徒虽已见过复活的主，但主并不在身旁，也没有别的什么特别可作的事，只得重操旧业。不过几个人聚在一起打鱼，倒也有挺好，往日的回忆也一一浮现。然而仍有问题未解决，门徒身上到底有何问题呢?

第一，门徒纵然同心协力，也毫无“所得”。**“…那一夜并没有打着什么。”**（约 21:3）。七个门徒聚在一处。其中彼得起身说：**“我打鱼去。”**其余的门徒也说，我们也和你同去。于是门徒上了船，尽力撒网，整夜却一条也没有打着。人多也不行。是搁下太久，打鱼的本事退了吗？不是。一辈子靠打鱼为生的门徒，纵然歇了三年，也不至于整夜打不着一条。然而有一件事是明摆着的：不是尽了力就能成事，不是几个人合力就都顺利，不是内行就都顺利，也不是得了人的认可就都顺利。这是我们必须知道的。

第二，主一直“站”在那里。**“天将亮的时候，耶稣站在岸上…”**（约 21:4）。门徒打鱼的时候，主站在岸上。但主不是只站在海边，不是只在教会里，也不是只在圣洁之处。他就在我们谋生的地方，并且在那里看顾我们。约翰・卫斯理有一句名言：**“至美之事，莫过于 神与我们同在。”**（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不是别人与我同在的时光，乃是 神与我同在的时光，才是最好的时光。 神所同在的地方，那里就是最好的地方。**“我岂没有吩咐你吗？你当刚强壮胆！不要惧怕，也不要惊惶；因为你无论往哪里去，耶和华你的 神必与你同在。”**（书 1:9）。

第三，他们“认不出”耶稣。**“天将亮的时候，耶稣站在岸上，门徒却不知道是耶稣。”**（约 21:4）。从第4节看，耶稣站在岸上，他们却连主就在自己中间也认不出来。太专注于自己的事，连耶稣来了也不知道。耶稣就在我们生活的现场，我们却常常不知道主正站在那里。他分明就在我们身旁，我们却不知道。我们的主总是以灵与我们同在。人一忙，连主来了也不知道；忙得团团转，连主也认不出。忙碌固然是好，却把要紧的丢了。愿我们不要忘记，主总在身旁。**这时主的反应如何呢?**

（一）主问：“你们有吃的没有？” **“…小子！你们有吃的没有？”**（约 21:5）。这是最要紧的一问，对门徒却是扎心的一问。主所问的，正是**“你们打着鱼没有”**。他们上船下海是为什么呢？是去游船吗？不是。是去度假吗？不是。是打鱼去的。所以主才问他们打着了没有。其实主并非不知道门徒没打着鱼才问的。既然知道，为何还要问呢？这一问的意思是：**“你们为什么在这里？”**门徒此刻既不知道自己当作什么，也不知道自己当在哪里。

（二）“是主！” **“耶稣所爱的那门徒对彼得说：‘是主！’那时西门彼得赤着身子，一听见是主，就束上一件外衣，跳在海里。”**（约 21:7）。主来了，使徒约翰先认了出来，就说：**“是主！”**约翰这门徒没有为着打上鱼来大呼小叫，倒是认出“是主”，主就欢喜了。三年的门徒训练，到底没有白费。

（三）主早已“预备”好了。 **“他们上了岸，就看见那里有炭火，上面有鱼，又有饼。”**（约 21:9）。到耶稣那里一看，炭火上放着鱼和饼。我们只要到主那里去，主早已为我们把一切预备妥当。为着整夜一条鱼也没打着、饥肠辘辘的门徒，他预备了饼和鱼。为着受冻的门徒，也为着烤干彼得的衣裳，他连炭火都生好了。主是把一切预备停当，然后呼召我们。这不正是耶和华以勒吗？我们若被夺去感恩，手舞足蹈的就是撒但。

(번역) 김기호 집사

When Peter heard him say, 'It is the Lord!' ··· he jumped into the water. John 21:1-7 (NIV)

After Jesus was crucified, the disciples returned to their former occupations. Some of them, who had been fishermen, went back to the sea. There were seven of them together: Simon Peter, Thomas, Nathanael, John, James, and two other disciples. Even though they had already met the risen Jesus, the Lord was not physically with them, and they had no special task to do. So they naturally went back to their trade. Fishing together brought back memories and some camaraderie. But there was a problem. What was the trouble that confronted the disciples?

First, even with all their combined effort, they caught nothing. **"That night they caught nothing."** (John 21:3). Seven disciples gathered in one place. Peter took the lead and said, "I'm going fishing." The others said, "We'll go with you." So they got into the boat and cast their nets diligently, but all night long they caught not a single fish. Many hands didn't help. Had their fishing skills declined after such a long break? Not likely—these were lifelong fishermen. Three years away wouldn't make them catch nothing all night. The clear lesson is that working hard does not guarantee success; joining forces does not guarantee results; being an expert does not guarantee results; and being recognized by people does not guarantee results.

Second, the Lord kept standing there all along. **"Early in the morning, Jesus stood on the shore..."** (John 21:4). The Lord was standing on the shore while the disciples were fishing. But He doesn't stand only on the shore, nor only in the church, nor only in holy places. He stands in the very place of our daily work. And He watches over us there. John Wesley famously said,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The best time is not when others are with us, but when God is with us. The best place is where God is with us.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Joshua 1:9).

Third, they did not recognize Jesus. **"Early in the morning, Jesus stood on the shore, but the disciples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John 21:4). They were so absorbed in their own work that they didn't even notice Jesus standing among them. Even when Jesus is present in our daily lives, we often fail to see Him. He is clearly beside us, yet we don't know it. Our Lord is always with us in Spirit. When we are too busy, we miss His presence. When we are too hurried, we fail to recognize Him. Busyness may have its benefits, but we end up missing what truly matters. Never forget that the Lord is always right next to you. Now, **how did the Lord respond?**

(1) He asked, "Haven't you any fish?" **"He called out to them, 'Friends, haven't you any fish?'"** (John 21:5). This was the most important question—and a painful one for the disciples. Why had they gone out on the sea? For a pleasure cruise? No. For a vacation? No. They went to catch fish. So He asked whether they had caught any. In fact, the Lord knew they had caught nothing; He didn't ask out of ignorance. Then why did He ask? It was a way of asking, **"Why are you here?"** The disciples had lost sight of what they ought to be doing and where they ought to be.

(2) "It is the Lord!" **"Then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said to Peter, 'It is the Lord!' As soon as Simon Peter heard him say, 'It is the Lord,' he wrapped his outer garment around him (for he had taken it off) and jumped into the water."** (John 21:7). The apostle John was the first to recognize the Lord and declared, **"It is the Lord."** Instead of making a fuss over the fish they had caught, John acknowledged the Lord, and that pleased Jesus. After three years of discipleship training, it had paid off.

(3) The Lord had already prepared everything. **"When they landed, they saw a fire of burning coals there with fish on it, and some bread."** (John 21:9). When they came to Jesus, there was a charcoal fire with fish and bread already laid out. When we come to the Lord, He has already prepared everything for us. For the hungry disciples who had caught nothing all night, He had bread and fish ready. For the cold disciples, He had even lit a charcoal fire to dry Peter's clothes. The Lord prepares everything and then calls us. Is He not Jehovah Jireh? If we lose our gratitude, it is Satan who dances.

(번역) 김은성(Kevin Jin) 목사